

결 정

2018 - 3104 신문윤리강령 위반
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

주 문

파이낸셜뉴스(fnnews.com) 2018년 2월 9일자(캡처시각) 「맥주를 마셨을 때 몸에 생기는 놀라운 효과」라는 제목에 대하여 '주의' 조치한다.

이 유

1.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캡처시각 18. 2. 9. 17:12>

『맥주, 대사증후군 치료와 당뇨 예방에 효과 <연구>

파이낸셜뉴스 입력 : 2018.02.09 16:42 수정 : 2018.02.09. 16:42

맥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.

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, 고혈압, 고혈당, 낮은 HDL-콜레스테롤, 높은 중성지방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동시에 보이는 질환이다.

미국 오레건 주립대학교 연구진은 비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맥주의 주원료인 ‘홉’에 들어있는 잔토휴몰(xanthohumol)과 유도체 성분인 DXN, TXN이 대사증후군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발견했다. 제 2형 당뇨의 주된 요인인 인슐린 분비 장애가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.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.

이미 과거 연구에서 잔토휴몰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유방암 등 에스트로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었다.

연구를 이끈 프레드 스티븐스 교수는 “잔토휴몰과 그 유도체를 함께 사용했을 때 전과 같은 효과를 얻었지만 부작용은 없었다”고 설명했다. 고지방 식단을 먹여 비만이 된 쥐들에게 잔토휴몰의 수소화 유도체인 DXN과 TXN을 주입해 나온 결과다.

이론적으로는 맥주가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맥주를 마시는 것만으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.

맥주에 들어 있는 성분이 잔토휴몰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. 또 맥주에 들어 있는 잔토휴몰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.

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대사증후군 치료에 잔토휴몰이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.

cherry@fnnews.com 전채리 기자』

<<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802091118299919>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비만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맥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인 잔토휴몰과 유도체 성분인 DXN, TXN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 「맥주를 마셨을 때 몸에 생기는 놀라운 효과」는 기사 내용을 다소 과장한 측면이 있다.

맥주의 주 성분인 ‘홉’에 들어있는 잔토휴몰이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, 극히 소량으로 한·두병 마시는 정도로는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. 기사에서도 “이론적으로는 맥주가 당뇨를 예방하고 체중을 감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맥주를 마시는 것만으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”고 밝혔다.

따라서 위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,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| | | |
|-----|-------|-----|
| 위원장 | 김 용 담 | 김용담 |
| 위원 | 정 승 호 | 정승호 |
| | 장 명 국 | 장명국 |
| | 박 재 현 | 박재현 |
| | 장 인 철 | 장인철 |
| | 김 규 식 | 김규식 |
| | 강 희 | 강희 |
| | 하 윤 수 | 하윤수 |
| | 김 영 모 | 김영모 |
| | 박 미 경 | 박미경 |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